대한한의학회지 제31권 제5호(2010년 9월)
J Korean Oriental Med 2010;31(5):33-40

Original Article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한의학 교육에 대한 검토: 일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송영일[1], 이길준[1], 리 빠벨 안드레이비치[1], 안건상[1], 김동호[2]

[1]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병원,
[2]한국 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Reviewing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ine in Uzbekistan: with Reference to the Data in a Medical Academy

Young-Il Song[1], Kil-Joon Lee[1], Pavel Andreevich Lee[1], Keon-Sang An[1], Dong-Ho Kim[2]

[1]Korea-Uzbekistan Friendship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Tashkent, Uzbekistan,
[2]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ashkent, Uzbekistan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of Oriental medicine and to develop a future-oriented curriculum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Uzbekistan.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current curriculum.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120 students (5th year in Tashkent medical academy in Uzbekistan) in order to examine the course's efficacy for the attainment of oriental medical knowledge.
Results:
1. Among the respondents, 69.6% of them have already studied oriental medicine.
2. The respondents felt that the class in Oriental medicine was effective (88.3%). Moreover, they felt that understand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as also beneficial (81.6%). However, 52.5% of them have responded that the class seemed difficult.
3. Among Uzbeki medical students, 64.9% of them have shown interest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38.4% in traditional Korean herbology and pharmacognosy.
4. We also found that 63.8% of them have desired to have more specific studi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 According to our results, developing adequate textbooks, teaching methods, and qualities of instru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for the successful general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Uzbekistan.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urriculum of Oriental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서 론

21세기 통합의학(Integrative Mdicine)은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류의학(Orthodox or Conventional medecine)과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에서의 최선의 치료법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1)]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의과학관련 기관이나 보건의료관련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Received : 6 May 2010 ・Revised : 17 August 2010 ・Accepted : 20 August 2010
・Correspondence to : 송영일(Young-Il Song)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6번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Tel : +82-42-470-9688, Fax : +82-42-470-9005, E-mail : filmaker21c@gmail.com

1990년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미국 의회와 정부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전통의학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축적된 지식자원을 바탕으로 각국 전통의학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려 시도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이 시대적 조류를 인식하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의 R&D예산 중 일부를 한의학 연구 분야에 배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계보완대체의학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2]. 한의학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전통의약체계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전통의학과 관련된 미래 상황과 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2,3].

그 동안 중국은 중의약을 세계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130 여개국에 중의약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현재 중의약은 세계전통의약의 주류로 인정받는 전통의약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4].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 역시 세계전통의약분야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한국 한의학을 세계에 보급하는 노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에서의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방법등에 관해서는 논의되거나 연구된 바 없다[2,5,6]. 이런 면에서 외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수준 및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한국 한의학'강의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한국 한의학"은 '학생들에게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치료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교과목적[7]하에 개설된 우즈베키스탄 타쉬케트 국립의과대학의 민족의학(Народная медицина)이라는 과목 중 일부분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민족의학(Народная медицина) 과목은 타쉬켄트 국립의과대학에서 1996년부터 진행되어온 교과목으로 의과대학 교과과정상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공필수 과목이다. 한국 한의학 강좌는 타쉬켄트 의과대학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으로 개설되었고 학습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없으며 한국어-러시아어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특강형식의 강의이다.

본 강의를 통해서 단편적인 치료법을 학습시키기보다는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계의학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 한의학이라는 특정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면서도 우즈베키스탄에 자생하는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 강의에 대한 분석을 위한 기명 설문 조사는 강의가 끝난 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전통의학 관심여부, 강의의 유효성, 강의의 난이도, 심화 강의의 주제 선택등에 대한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첨부). 설문에 대한 120명의 설문결과 중 오류가 있거나 무의미한 값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무응답처리를 하였으며 수치는 무응답을 제외한 의미있는 값들로만 처리한 통계치로 하였다.

결 과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사전 지식이 있는가(질문 1)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46.4%의 우즈베키스탄 국립의과대학 의과대학생들이 학교수업이외의 관련 사설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고, 23.2%의 학생들은 관련도서를 읽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체 학생 중 69.6 %의 학생이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Fig. 1).

본 강좌가 강좌 개설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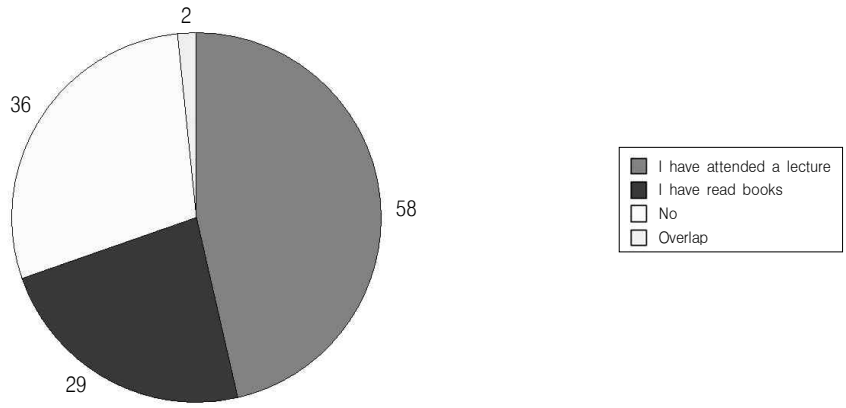

Fig. 1. Interest in oriental medicine

(질문2)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88.3%(Fig. 2-A)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는데, 이에 본 강좌를 통해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고 관심을 높이는 목표달성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강좌가 한국의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질문3)라는 질문에 대해서 81.6%의 수강생들이 이해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대답하였다(Fig. 2-B). 하지만 '매우 도움이 되었다(0.75%)' 보다는 '그렇다(68.3%)'의 대답이 월등히 많았으며, '부족했다(17.5%)'는 대답도 일정부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강좌가 한국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강좌에 대한 난이도를 묻는 질문(질문4)에는 '약간 어렵다'(50.8%), '보통이다'(34.1%), '쉬웠다'(12.5%) 순으로 응답하였다(Fig. 3-A). 흥미로운 점은 '많이 어려웠다'(1.66%)는 응답이 극히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수강생들이 한국 한의학 강의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강좌에 있어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질문5)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했다'(51.1%), '개념이 생소하다'(27.06%), '통역을 통한 강의였다'(9.7%) 순으로 응답하였다(Fig. 3-B).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것을 보면 한국 한의학 강의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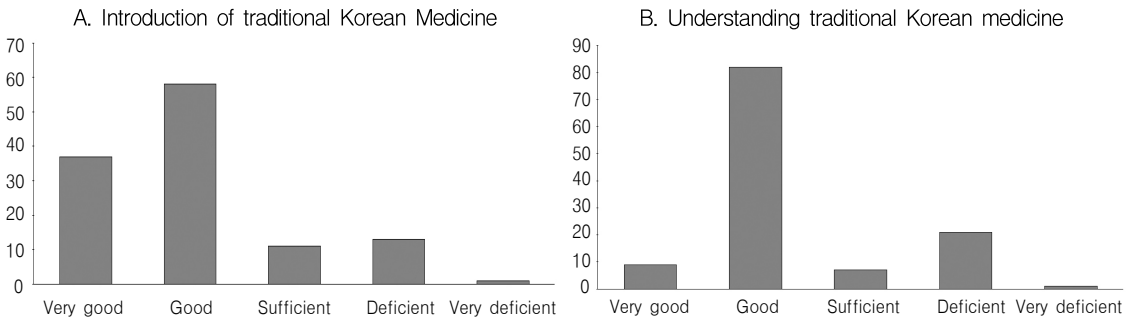

Fig. 2. Implementation of the class goals.
A. The class was fit to the purpose of this class (introduc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 The class was helpful for understand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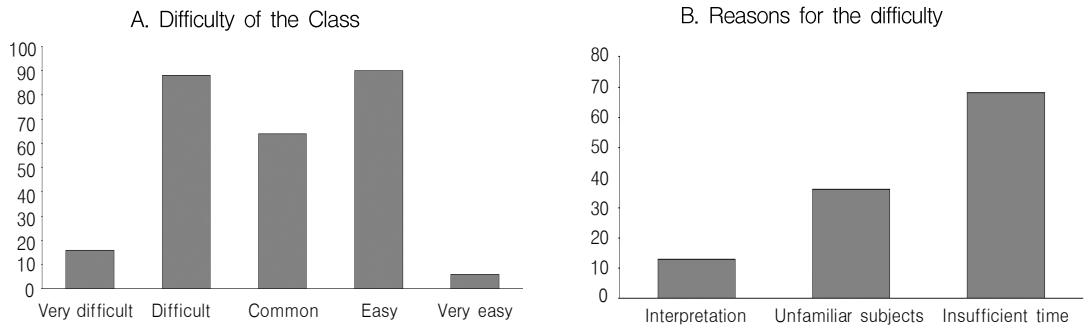

Fig. 3. Difficulty of the class and its reasons.
A. Difficulty of the class. B. Reasons for the difficulty.

를 위해서는 현재 강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의는 한국어-러시아어 통역을 통한 강의였기 때문에 통역자의 통역이 완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언어 환경상 우즈벡 민족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통역을 통한 강의였기 때문에 강의가 어려웠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 한의학의 어떤 분야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가(질문 6)에 대한 응답은 64.9%의 학생들이 침구학을 뽑았으며 38.4%의 학생이 본초 방제학을, 35%의 학생들이 한방내과학을 흥미를 느끼는 분야로 응답했다(Fig. 4). 흥미로운 점은 약침학에 대한 관심도 26.6%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침학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지만,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 과거에 근무하였던 한의사들이 약침시술을 많이 하였고, 또한 우즈베키스탄 의료 환경상 많은 의료수가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현지 환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한국 한의학에 관한 심도 깊은 강의가 개설된다면 수강하겠는가(질문 7)에 대해서는 '반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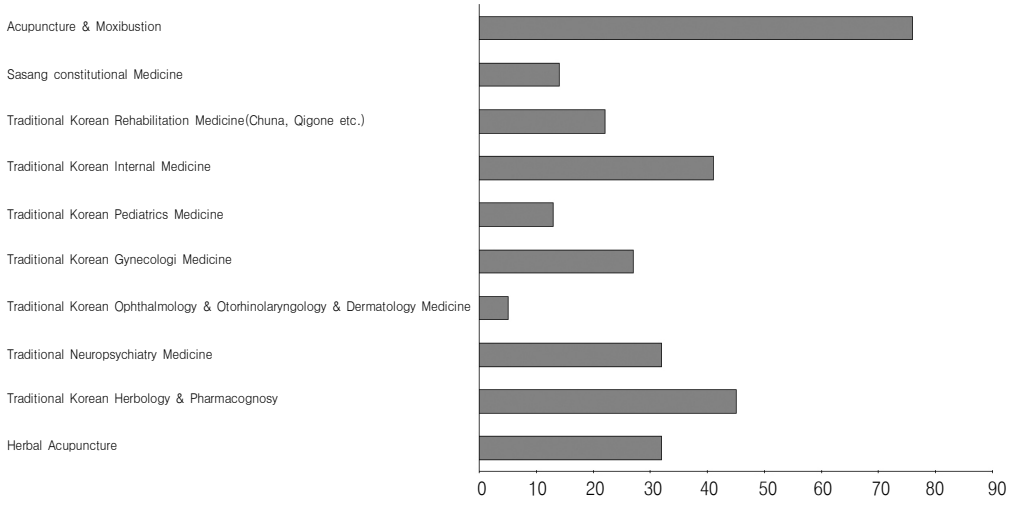

Fig. 4. Preference Choice By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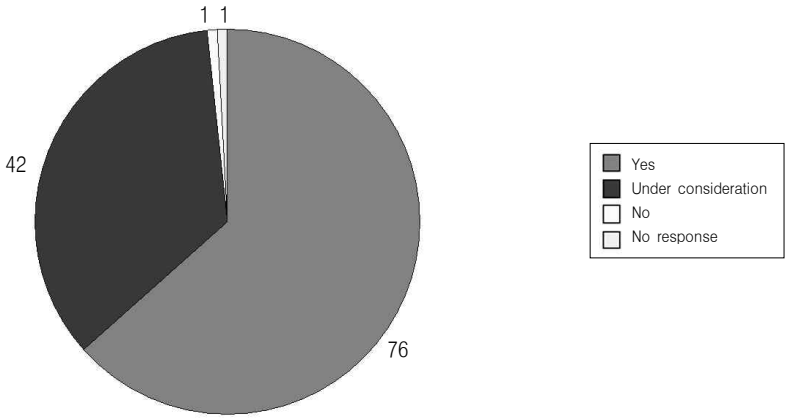

Fig. 5. Responses of the question about desire to have more specific studi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수강하겠다'(63.3%)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각해보겠다'(35%), '수강하지 않겠다'와 무응답은 각각 한명씩 응답했다(Fig. 5). 이를 본다면 타쉬켄트 의과대학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은 한국 한의학에 대한 학습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6,8]에서는 영어 교육의 확대, 국외 연구 혹은 교육기관과의 인적 교류확대, 외국 저널 학습의 활성화, 한의학을 영어로 강의할 교원의 확보, 해외 전문 한의사의 육성 등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는 있으나, 영어권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한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한의학의 세계화가 반드시 한의학의 영어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각국의 상황에 맞는 한의학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용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919년 최초로 수도인 타쉬켄트에 의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현재 총 8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그리고 1996년에 타쉬켄트 의과대학에서 동양의학에 관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동양의학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6월 9일에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노력으로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이 설립되었다. 한-우 친선한방병원 개원과 함께 본 병원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소속의 정부파견한의사와 국제협력한의사가 파견되어 타쉬켄트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양의학에 대한 강의가 정규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서양의학을 전통의학(традиционная медицина)이라 명명하고 동양의학을 비전통의학(нетрадиционная медицина)이라고 명명할 만큼 동양의학을 등한시 해오던 우즈베키스탄 의료교육 체계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 역시 의학교육의 목표를 필요 지식에 대한 수동적 암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학지식들을 능동적으로 습득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데[9,10] 보다 더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의료환경은 침구(鍼灸)시술의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내에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단편적인

사실로 2010년 2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초로 정부지원의 우즈베키스탄 민족의학 학술대회가 열린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에게 근거기반의학적 관점에서 동양의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교육하여 미래의 통합의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11]하는 과정에 한국 한의학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의과대학에 개설되었던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고, 이를 수료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 외국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도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동양의학에 관한 사전지식을 습득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Fig. 1), 동양의학에 관한 관심은 새로운 연구분야이기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 이후의 활용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단순히 관련서적 열람을 넘어서 사설강의를 수강했다는 비율이 46.4%인 것을 보면 일부학생들은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강좌에서 제공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정보는 미래지향적 통합의학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며 세계의 보완대체의학 속에서 한국 한의학의 동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단편적인 경혈학이나 치료방법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세계 의학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evidence for safety and cfficacy)를 밝히며 능동적으로 한국 한의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그 효과는 수강생들의 만족도(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강의의 체감 난이도가 극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 강의는 한국어-러시아어 통역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통역 문제로 강의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강의 시간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Fig. 3). 이는 통역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될 시 시간이 1.5-2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 76시간의 수업시간에 방대한 동양의학과 한국 한의학 분야를 개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위해서는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하게 수업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강사의 외국어능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한의학의 여러 분야를 소개하고 분야별 중점치료질환과 연구성과등에 대해서 강좌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는데, 강의를 완료한 후 수강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 한의학 분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침학이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흥미롭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약침을 시술하는 병·의원이 없으며, 약침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익숙해하고 치료만족도가 높은 치료가 주사제 치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약침학은 침과 약이 혼합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에게 많은 궁금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보다 더 전문적인 한의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겠다는 응답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을 보면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한국 한의학 교육을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적절한 교육방법, 교육 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강의의 유용성을 높이고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강시간, 학부생의 소화 능력, 선호도등을 기준으로 한 수강내용의 유연한 조절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 진행 경험으로 본다면 한국 한의학의 현 상황을 중심으로 한 총론적 교육은 통역을 통한 강의였을 경우 90-100시간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질병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각론은 향후 연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강좌의 목표성취를 위해서는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서적들의 러시아어와 우즈벡어 번역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한의학의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효과를 스스로 체험하고, 관심 분야 및 학습수준에 맞추어 교과과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교육과정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한의학 교육이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실제 임상 활용을 목표로 한 전문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체계를 지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 강의가 수강생의 졸업 이후에까지 어느 정도 지속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설문 응답에 제시된 만큼 향후에 한국 한의학 강의를 공부하는 가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강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외국어 우수자들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활용함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화된 교과과정의 개발과 국제한의학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12,13]등의 활용과 함께 정부파견한의사와 국제협력한의사 유경험자및 이에 복무중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 전략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Eisenberg D.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al therapies.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Integrative medical Research; 2002 April 12-14; Boston Marriot Copley Place.
2. Yeom YK. A planning study on the long-term growth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R&D. Seoul, Korea: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6.
3. Ahn DH, Shin TY, Uhm MJ, Kim HS. Future socio-economic issues and needs for technology foresight. Seoul,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03.
4. Lee KG, Bae SH, Shin HK. Assessment on Forecasting Stud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0~2010). J Korean Oriental Med. 2007;28 (1):118.
5. 신현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제1차, 2006-2010).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장기 한방육성대책수립연구.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7.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вышего и средне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иповая прогрмма вы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дисциплине народная медицина. Ташкент. 2002:4.
8. Shin HK. The research on the strategy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Daejeon, Kore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1.
9. Evidencs Based Medicine Working Group.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268:2420-5.
10. Meng KH. Medical Education Pla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Korea: Hopes and Challenges. Korean J medical education. 2004; 16(1):1-11.
11. Lee SJ, Park SZ, Shin SW, Chae H.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J Korean Oriental Med. 2008;29(1):25-38.
12. 채한. 전문대학원의 필수기관.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2007.
13. 이선동.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모델정립 연구.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2007.

첨부

설문조사

1. 과거에 한의학(동양의학, 중의학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거나 관련도서를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한의학 관련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 ② 관심이 있어서 관련도서만 읽어본 적이 있다.
③ 없다. ④ 기타

2. 본 "한의학 강의"는 타쉬켄트 국립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이러한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되었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했다 ⑤ 매우 부족했다

3. 본 강의가 한국의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했다 ⑤ 매우 부족했다

4. 본 강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많이 어려웠다 ② 약간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쉬웠다 ⑤ 너무 쉬웠다

5. 본 강의가 어려웠던 이유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 통역을 통한 강의이다. ② 처음 듣는 내용이다. 개념이 생소하다.
③ 시간이 너무 짧았다. ④ 기타( )

6. 한국 한의학의 어떤 분야에 가장 흥미를 느끼십니까?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① 침구학 ② 사상의학 ③ 한방재활의학(추나학, 기공학등 포함)
④ 한방내과학 ⑤ 한방소아과학 ⑥ 한방부인과학
⑦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⑧ 한방신경정신과학 ⑨ 본초 방제학
⑩ 약침학 ⑪ 기타

7.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교육 과정을 개설 한다면 수강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수강하겠다 ② 생각해보겠다
③ 수강하지 않겠다 ④ 기타

8. 본 강의에 포함되기 희망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